

98년 지방자치체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

최초의 정권교체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 정치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0년까지 격동의 나날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선거패배'에 낙담하기에는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지자체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진보진영은 다가올 지자체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함운경

전국연합 중앙위원

이주제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고 무척이나 곤혹스러웠다. 아마도 필자가 선출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곤혹스러웠던 이유는 첫째 내가 지방자치체(이하 '지자체')에 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우리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생각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피력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었으면 한다.

15대 대선때 '국민승리21' 관악 동작 지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시작할 때는 대선을 지자체 선거와 연결시켜서 준비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15대 대선활동의 내부 목표는 관악구 27개동에 10명씩의 연고자를 확보하고 이 연고자를 바탕으로 이후 진보정당의 조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이번 대선 활동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의 힘찬 전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서없는 거치른 글이 읽기가 거북하다라도 이 글에서 건질 이야기가 있었으면 한다.

1. 15대 대선에 갖는 의미

이번 대통령선거는 사실 그 동안 우리 운동의 연장선에서 치루어진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즉 이념적 반성(돌아봄)도 없었고 조직적인 재편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 운동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만표 득표로 끝난 우리 대선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발전을 위해서는 자위보다는 절척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운동 이념의 애매함과 협소함이다. 노동조합이나 농촌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그동안 설득력을 가졌던 운동노선은 국민일반에게 던져졌을 때는 무기력하였다. 투쟁과 요구 그리고 생존조건을 지켜내는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정치는 사람을 지휘하고 조직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선이 국가경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정치집단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이고, 선거란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한 것은 그런 거창한 것은 못되더라도 근로대중으로부터 자기 편이라는 인식만큼은 받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30만표의 선거결과는 정치적 시민권으로서 너무나 빈약한 수치이다. 즉 이 결과는 국민들이 우리 진보진영에게 국가권력을 맡기는 것을 어렵어 한다는 냉정한 판단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선결과는 이른바 진

보진영이 이념과 사회국가 개조의 청사진을 제시할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내는 것에도 기존 정당과 정파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은 정치운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선거과정에서 타후보에 대하여 우리의 위치를 확정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곤란했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 앞으로는 과거에 이런 저런 대중운동에 몸을 담았다는 인연으로 뭉칠 수 없고 뭉쳐봤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수한 활동가들과 활동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일치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 즉 진보진영이란 어떤 사람을 일컬으며 과연 진보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묻고 싶다. 나는 15대 대선에 모인 사람들이 비록 연합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후보자의 주장과 행동으로 일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행과정은 그러하질 못했다. 내가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진보에 대한 이념과 대안이 지금은 없지만 전국적 공동행동인 대선운동을 다함께 하면서 우리의 이념과 대안을 토론하고 연구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합법정당을 세우고 분열되지 않고 중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 문제이다. 2백여개에 이르는 선거연락사무소와 여러 지부를 건설한 것을 조직적 성과 내치 조직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 선거연락소가 정당조직으로 발전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아니 기존 정당으로 보면 사교 지구당이다. 우리 나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급 대중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자제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라에는 국가 선출직만 5천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시군구의원, 광역시도의원, 시군구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포함하여 5천여명 인데 우리가 그 중 10%인 500명은 커녕 1%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대중조직에서 선출되는 지도부가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출마할 의사가 있고 끊임없이 도전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2백개의 선거연락소에는 정치에 나서겠다는 즉 선출직에 도전하겠다

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 대중지도자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운동이 대중운동의 성과를 발판으로 정치운동으로 나아가는데 크나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얻은 표 1.2%는 내가 예측하고 있는 전국 지자제출마 예상 자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이 정도가 우리 실력이다.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 본부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서 지부조

직 결성을 위한 여러 지역의 움직임을 들었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부장인선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조직을 꾸릴 때 관악구에서는 내가 지부장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내가 고민했던 것은 선거실무를 맡을 사무장인선에 관한 것이었다.

당은 저칠게 말하면 정치할 의사가 있는 특히 출마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건설된다. 그러나 전국의 정치지방생은 운동권에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운동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성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급 대중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자제 선거에 나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노동조합의 간부가 조직적인 결의를 통해 지자체 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하지 않고서는 합법정당 건설은 요원할 것이다.

2. 합법정당 건설하는 과정에서 온갖 선거에 도전하자.

진보정당 건설 내지 정치세력화는 운동진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준비와 진행과정은 그리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가장 큰 원인은 이념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념 문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려면 첫째, 북한과 북한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 통일되어야 하고 둘째, 한국사회의 현재 발전단계와 기본 과제, 셋째, 사회의 궁극적 발전목표 넷째, 한국사회의 발전의 기본경로와 활동의 집중점 등에 관한 의견의 통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운동의 이념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당 건설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선에서 얻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판으로 대선에 참여했던 그룹 안에서라도 열의를 가지고 새롭게 이념을 정립하면서 당 건설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에서 보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빠른시일 안에 합법적인 진보정당 건설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있을 지자체 선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출

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념이 갖추어지고 합포사격을 할 수 있는 중앙조직이 제대로 서있지 않더라도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각급 선거에 뛰어들어서 국민과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그것은 다음 두가지 측면 때문이다.

첫째로 그 동안 추상적인 경향으로만 존재했던 우리의 이념과 정책이 선거를 통해 국민 앞에 던져지면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이념과 정책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골방에서 아무리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노동조합에서 빛나는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설득할 논리와 정책이 없다면 그것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즉, 지방자치는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을 형성하는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펼쳐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당당히 내세워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선거행태를 깨기 위해서다. 적은 표라도 최고득표자가 전부를 차지하는 선거 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투표행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투표행태를 깨는 것은 계속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이후의 진출에 밑거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출마에 나섰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합법정당의 기본경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더라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나는 지자체 선거에 많이 나서기를 바란다.

선거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간다.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정치적 실험도 당선을 위한 것이지 한 번 해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당선을 위해서는 협소한 우리운동의 틀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치적인 능력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재야단체에 연연하기보다는 당선을 위주로 사고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역량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

관악구에는 '관악주민연대'라는 빈민 활동을 오래 하다가 주민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조직이 있다. 주민운동의 귀결점은 반드시 지역정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민운동 조직과 함께 이번에는 관악구에서 출마하기로 한 후보는 현재 4명이다. 관악구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인원이 구청장 1명, 광역의원 7명, 구의원

44명이지만 동별로 기초의원은 27명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총 35명의 출마자가 필요하다. 애초에 구청장까지 포함한 대거 출마를 기획했지만 구청장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관악구 사정에 맞는 선거캠페인과 차별화된 선거전술을 계획했지만 당장에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내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래도 타후보의 약점과 헛점이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시도해볼 생각이다. 관악구는 연합공천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합공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다 사회단체와의 연대는 관악구 차원에서는 고려할만한 대상이 없다. 큰 범위에서

시도된다면 고려를 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관악구에서는 생각만 있었고 시도를 못했지만 지역적으로 가능하다면 시군구 단체장에서부터 모든 세트를 다 갖춘 제대로 된 선거싸움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면 한다.

3. 2000년 총선까지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우리가 처한 현실 조건을 인정하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실

선거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간다.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당선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정치적 실험도 당선을 위한 것이지 한 번 해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당선을 위해서는 협소한 우리운동의 틀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적으로 진보진영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진보진영을 가르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서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진영의 끝을 갖춘 진보세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올 지자체 선거에서는 사회세력인 민주노동이나 전농 등 대중단체의 중앙조직차원에서 '단지' 선거에 후보를 내어 참여하지는 선언적인 의미의 캠페인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전국에서 50명의 확실한 우리편 출마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미에서 의미있는 행동을 전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각개약진으로 치루어질 지자체 선거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 성과는 조금씩 조금씩 쌓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이다.

합법정당을 건설하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경우,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되는 경우 등에 따라 그 경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려면 새로운 의식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결사해야 한다. 2000년 이전에 대선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보다 나은 높은 이념적 통일성을 갖는 합법정당 건설의 경로를 열어갈 것이라 기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외로운 싸

움을 결심하여야 한다. 나는 영웅을 기다리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이름없는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이름있는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 나라의 미래와 사회의 발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자각이 있는 이상 결과는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